

# '상위 1% 집부자' 소유 주택 10년 새 2배 증가

최근 10년 동안 주택 보유량 상위 1%인 '집부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신도시 등을 건설하며 주택 공급을 늘려도 결국 혜택은 다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당 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1% 다주택자 주택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2008년 1,060만 가구에서 2018년에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 공급은 1,510만 채에서 2,000만 채로 490만 채가 늘었다.

주택 공급이 490만 채 증가할 때 주택 보유 가구는 240만 가구 늘어난 데 그친 것을 보면 250만 채는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는 주택 30만 채 규모인 3기 신도시의 8배 규모다.

지난해 주택 보유 상위 1%(12만9,900명)가 소유한 주택 수는 91만 채로 2008년(10만5,800명, 36만7,000채)보다 54만3,000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위 1%의 1인당 보

유 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도 450만8,000채로 10년 전(242만8,700채)보다 207만9,300채 증가했다.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배 늘었다.

다주택자로의 주택 보유 집중이 심화되면서 이들 집부자의 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이 주택 평균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 55%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2008~2018년) 주택 보유 상위 1%가 가진 주택의 가격은 1인당 평균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11억 원 증가했다. 상위 10%는 평균 주택가격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억 원가량 늘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의 자산 가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고 집값 상승을 뒤따라간 전·월세 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면서 자산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한 가구의 주택 장만 시점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3세로 집계됐다. 2017년 43세보다 0.3세, 2016년(41.9세)과 비교하면 2년 새 1.4세 높아진 것이다.

#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제작 단계 진입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한국의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지난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열린 한국형 전투기 상세설계 검토(CDR) 회의를 통해 군 요구 조건을 설계에 모두 반영한 시제기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세설계 검토란 비용과 일정, 위험 범위 안에서 시제기 제작, 체계 통합 및 시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공식 확인하는 절차이다.

방사청은 "공군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이 약 390종의 기술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16년 1월 시작됐다. 지난해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지금은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세설계를 토대로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풍동시험과 주요 계통 모델의 최신화, 분야별 설계와 해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상을 개선해왔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

고된다.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개발비만 모두 8조8,30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이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공군은 FX 사업을 통해 스텔스전투기 총 60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F-35A 가격이 높게 책정돼 지난 2014년 우선 40대만 구매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후 군 당국은 주변 국가들의 전력 증강 등에 따라 FX 2차 사업을 통해 스텔스전투기 부족분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향공모합 국내 건조 계획(대형수송합-II 사업)이 지난 8월 발표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면서 F-35B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2030년대 초반에나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송합의 건조가 예상되면서 F-35A 20대 추가 도입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